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81호]

◆ 목차

-**포커스**: 여성시각장애인리더 만들기 / 이영옥(대전광역시의원, 시각장애 1급)

-장애인계 뉴스

1. 장애인이 이용하기 가장 어려운 웹사이트는 어디?
2. EBS 장애인용 웹사이트, 2년 연속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해
3. 경기필하모닉, 시각장애인을 위해 재능기부 콘서트 열어
4. 장애인 정보화 수준, 매년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5. 음악가를 꿈꾸는 장애인들은 모두 모여라...희망방송, 장애예술인 훈련생 모집
6. 익산시, 여성시각장애인들과 따뜻한 동행에 나서

-**기획** 녹음스튜디오 사용료가 다른 방송사의 1.6배?...KBS의 이상한 화면해설방송 제작

-**독자마당**: 나의 첫 테마독서여행 / 왕규웅(전북 익산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월 16일~1월 31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49)

●포커스

-여성시각장애인리더 만들기 / 이영옥(대전광역시의원, 시각장애 1급)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만족스럽고 조화로울 때 완성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성장과 발달은 저해되고 부정적응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은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회적 모임에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상의 불편함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에서 오는 편견과 차별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시각장애인은 다양한 사회의 모순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며, 갇혀 있고 배척당하면서 폭력과 고통을 당하여 왔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남성 그리고 비장애 여성보다 사회에서 많은 권리를 포기당한 채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는 사회의 편견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사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차별을 받고 숨죽여왔던 여성시각장애인의 목소리가 다양한 형태로 울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과정은 인식단계, 도전단계, 경험확대단계, 활동유지단계로 나타납니다. '인식'단계는 여성시각장애인으로서 사

회적 차별과 개인적인 배제·학대를 경험하면서 부당하고 차별적인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도전'단계는 여성시각장애인이 무기력함과 절망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신이 간절히 희망하던 배움을 시작하고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단계입니다. '경험확대'단계는 자신들이 현실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해결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스스로 주어진 역할에 대한 대처방식들을 익히고 습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활동유지'단계는 여성시각장애인들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사회활동을 지속하면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에 뒤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돕고자 노력합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또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여성시각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성시각장애인 사회참여에 따른 리더의 조건은 직업(활동) 경력, 사회환원 정도, 다른 여성장애인과 의 연대 활동, 개인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는 통찰력, 차별로 점철된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여성시각장애인 그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 여성시각장애인의 가장 어려운 점(상황)을 연대성으로 아우를 수 있는 능력, 여성시각장애인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위하여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등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여성시각장애인리더들이 자신의 성향과 기질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시기부터 리더십 교육을 제공해야하며, 장애 청소년 스스로 자

신을 부끄럽게 느끼지 않도록 자신감을 키워줘야 합니다. 특히 여성시각장애청소년은 장애와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정체화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 자원봉사자, 학교 등 지역사회를 포함한 주위의 적극적인 지지체계가 필요하며 여성시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실시되어야 합니다.

여성시각장애인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다른 여성장애인리더의 모습을 접하며 자신의 롤모델(role-model)을 발견하는 것이며, 타 여성장애인과와의 잦은 접촉을 통해 자기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료 여성시각장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사회의 문제임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여성시각장애인과 관련하여 모든 영역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시각장애인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여성시각장애인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시각장애인 역량을 강화하고 리더의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교육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은 여성시각장애인의 특징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리더양성교육을 통해 제도권 교육과 사회통합 경험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여성시각장애인 롤모델 개발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시각장애인리더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시에 국외 여성시각장애인리더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리더육성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전문인력양성기관(인력개발원,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서비스제공기관(복지관), NGO 단체 등에서 여성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리더육성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지원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리더육성 프로그램 역시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로 인정받는 여성시각장애인 전문가를 우선채용(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시각장애인 리더가 가진 역량을 강화해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계 뉴스

1. 장애인이 이용하기 가장 어려운 웹사이트는 어디?

장애인에게 인터넷은 여전히 높은 장벽일 뿐인 걸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센터장 유재호)가 2011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종합한 결과, 전체 평균 62.5점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평가에 참여했으며,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영역별로 대표 홈페이지를 선정해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복지관, 신문사, 전자인증, 중앙행정부처, 지역방송국, 특수학교, 교육청, 교육기관 등 8개 영역 202개 사이트로, 이번 조사는 8개 영역을 모두 종합한 것이다.

영역별로는 특수학교가 87.4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얻었고, 중앙행정부처(78.0점), 교육청(75.2점), 교육기관(64.1점) 순이었다.

반면 지역방송국이 34.7점으로 웹 접근성 준수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신문사(46.6점)가 그 뒤를 이어 언론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개별 홈페이지를 보면,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가 95.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울산혜인학교, 메아리학교, 충주성모학교가 그 뒤를 이어 1위에서 4위까지 모두 특수학교들이 차지했고, 90점 이상은 202개 중 겨우 7개로, 모두 교육관련 기관들이었다.

한편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지난해 국내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발급기관 5곳의 웹 접근성 준수현황

을 진단한 결과,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아이핀 발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자인증(아이핀) 서비스 제공자들은 본 센터와 상의해 홈페이지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유재호 센터장은 "장애인들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인터넷으로부터의 정보 취득에 더욱 의존적이다. 서비스제공자, 웹콘텐츠 개발업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웹 접근성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2. EBS 장애인용 웹사이트, 2년 연속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화면해설·자막·수화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free.ebs.co.kr>)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웹 접근성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WA인증마크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접근에 취약한 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에 발급된다.

심사는 자동툴 심사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기준한 기술성 심사 및 장애인이 직접 평가하는 사용성 심사 등 엄정한 3단계 과정을 거치며, 기준에 적합할 시 1년간 유효한 WA인증마크를 부여받게 된다.

웹 상에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가 일반 대중에게는 널리 활용되는 이때에 콘텐츠 제공자 및 개발자들이 웹 접근성을 외면하고 있어 시청

각장애인들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만큼, EBS의 이런 지속적인 노력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EBS는 2010년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금과 자체 예산 투자를 통해 지상파로 실시간 방송되는 화면해설·자막·수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시청자들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해왔으며, 인터넷 전용 화면해설·자막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운영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방송접근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WA인증마크는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홈페이지 (<http://www.kwac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경기필하모닉, 시각장애인을 위해 재능기부 콘서트 열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2월 17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눈으로 영화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귀로 영화를 감상하는 '시각장애인 초청 영화음악콘서트'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에만 5만여 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이 있지만, 이들만을 위한 음악회는 거의 없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이번 공연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건립을 즈음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여서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립극단 소속 배우들이 영화의 내용을 설명하고 영화 속 명장면을 재연하여 재

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인 초청 영화음악콘서트'라는 타이틀에 맞게 안내를 위한 도우미들과 점자로 제작된 팸플릿을 준비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이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 시네마 천국 등 영화 OST를 주된 레퍼토리로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화음악 콘서트'는 오는 2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에서 열리며, 시각장애인 및 유관 기관 종사자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공연장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주회를 모토로 진정한 의미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마련해 이들을 초대할 계획이다.

4. 장애인 정보화 수준, 매년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정보소외계층'으로 불리는 장애인·농어민 등의 정보화 수준이 전체 국민의 72.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2월 3일 발표한 '2011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작년에 비해 1.3% 향상된 것으로,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4년에 비해 27.4%p 향상되었다.

계층별로는 장애인 82.2%(전년대비 0.9% 상승), 저소득층 81.4%(0.9% 상승), 장노년층 69.2%(1.7% 상승), 농어민 63.6%(1.8% 상승) 순이었다.

장애인의 일반정보화 수준(인터넷 이용률, 가구PC 보유율, 정보화 활용능력 등을 종합한 결과)은 82.2%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을 보면 인터넷이용률 54.4%(전체국민 78.3%), 가구 내 PC 보유율 67.5%(전체국민 81.9%)이었다.

모바일 환경변화에 맞추어 신규로 조사한 모바일 정보화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인구가 100명 중 8.6명으로 전년(1.6명) 대비 5.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생활에서 스마트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활용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새롭게 부각되는 모바일 정보격차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활용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5. 음악가를 꿈꾸는 장애인들은 모두 모여라!..희망방송, 장애인 예술인 훈련생 모집

사단법인 로이사랑나눔회 희망방송에서는 2012년 장애인 예술인 훈련생을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모집한다.

'뉴크리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진행되며, 노래와 기타, 피아노 연주를 배우고 희망방송이 주최·주관하는 연말 콘서트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내용은 보컬, 기타, 피아노이다. 훈련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이나, 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심사를 통과

한 이들에 한해 지속적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로이사랑나눔회 희망방송은 2003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세상을 꿈꾸며 탄생된 이래로 장애인스타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장애 예술인을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 중창팀 희망새를 육성시키는 등 장애 예술인의 발굴과 육성에 앞장서 왔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차 서류접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물과 신청서를 함께 우편접수(신청서는 희망방송 홈페이지 알립니다 게시판에서 다운)
- 접수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9-11 대륭테크노타운 7차 1102호 희망방송
- 접수기간 : 2월 21일~29일 도착분에 한함
- 1차결과 발표: 3월 6일 ○ 2차 오디션: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면접
- 문의: 02-2637-3295 (내선 22)
- 주최, 주관: (사)로이사랑나눔회 희망방송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6. 익산시, 여성시각장애인들과 따뜻한 동행에 나서

전북 익산시(시장 이한수)가 여성시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익산시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자활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해 여성 시각장애인들의 병원 및 관공서 방문을 도울 계획이라고 한다.

시는 2012년 역점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번 여성시각장애인 지원은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익산시에는 현재 865명이 여성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중 157명은 시각장애 1·2급의 중증시각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여성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동행보조 활동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작지만 진심어린 관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기획

-녹음스튜디오 사용료가 다른 방송사의 1.6배?...KBS의 이상한 화면해설방송 제작

(본 글은 1월 2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배포한 성명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에 의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방송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서비스가 제작·제공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2000년부터 정부부처 및 KBS, MBC, SBS, 교육방송, OBS 등 방송사들과 협력하여 화면해설방송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다른 방송사와 달리, KBS만 유일하게 민간업체인 KBS미디어에 독자적으로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발주하고 있으며, KBS와 KBS미디어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타 방송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스튜디오 사용료를 받고 있다. 물리적 환경에 불과한 스튜디오 사용료를 예산에 과다하게 책정(전체 예산의 55%)한 후, 한시련에는 스튜디오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45%의 예산으로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화면해설방송의 제작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화면해설방송서비스의 상업적인 측면이 부각되거나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사업의 목적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강화'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위한 방송발전기금의 사용목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민간업체인 KBS미디어가 주도하도록 하고 있는 KBS의 처사에는 문제가 있다. 앞서 말했듯 KBS미디어는 독자적인 수주권을 이용해 스튜디오 사용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데, 60분 드라마 한편을 제작하는데 있어 타 방송사의 스튜디오 사용료가 30만원인데 반해 KBS미디어는 48만 1,900원으로 약 1.6배가 넘는다.

KBS의 이러한 화면해설방송 제작구조는 올바른 방송물 제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한시련은 이와 같은 제작 방식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KBS미디어는 KBS의 제작단가 인상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통해 발생하는 일부 수익금 전액은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방송물 제작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시련에서 제작하고 있는 타 방송사의 화면해설방송 수익금은 '화면해설 전문작가 및 성우 양성', '시각장애인 모니터링 양성' 등의 관련 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KBS미디어의 제작방식으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는커녕 현재 제작되고 있는 화면해설방송의 질적인 측면도 보장할 수 없다. 지금의 화면해설방송 제작방식이 계속된다면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의 고유 목적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으며, 사업의 수혜자가 시각장애인 시청자가 아닌 KBS미디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KBS도 타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 당사자단체인 한시련을 통하여 화면해설방송을 제작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방송

물을 제작하고 방송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만약 KBS미디어가 화면해설방송을 제작하는 데 있어 불가피하게 참여해야 한다면, 과도하고 일방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스튜디오 사용료를 다른 방송사 수준으로 인하해야하며, 수준 높은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위해 수익금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전액 재투자해야할 것이다.

●독자마당

-나의 첫 테마독서여행 / 왕규웅(전북 익산시)

시각장애인이 되고나서 9개월쯤이 지난 후였다. '시각장애인 테마독서여행'에 참가할 사람은 신청을 하라는 익산지회 직원의 전달사항이 있었다. '시각장애인 테마독서여행'은 독서와 여행을 접목시켜 독서활동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전라북도점자도서관의 프로그램이었다.

테마독서여행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수학여행을 가던 생각이 나면서 공연히 가슴이 설레어 만약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신청을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지회에서는 총 8명이 참석한다고 하였다.

마음이 설레면서도 '눈이 보이지 않는데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야된다는 마음이 앞서 있었다. 처음 가보는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여행, 과연 어떨까 하며 기다리던 중 출발 날짜가 되었다.

행사 당일 차에 타고 보니 네 분의 시각장애인 목사님과 지회장, 그리고 지회 직원이 있었다. 어쨌든 기분이 좋았고 일행들도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다.

동전주IC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점자도서관 진행요원을 비롯하여 이번 여행에 참가하는 다른 지회 일행과 합류해 안내사항을 들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착한 황전휴게소에 잠시 하차하여 휴식을 마치고 집결한 후 (사)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김원경 회장님의 인사말

씀을 듣고 이어 점자도서관 진행요원이 1박2일 동안의 일정과 공지사항을 설명해 주었다.

차는 출발한지 약 세 시간이 되어 첫 코스인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에 도착하였다. 바지락회무침으로 중식을 하고 밖으로 나와 설명을 들으니 바로 도로 건너에 바다가 있다고 했다. 바로 코앞에 바다가 있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잠시 후 점자도서관에서 섭외한 장흥군청 소속의 최예숙 문화해설사가 현재 위치와 인근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고, 이어 한승원 작가의 집필실인 해산토굴로 이동하였다. 한승원 작가의 집필실에 모인 7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한승원 작가는 작품구상과 이곳에 터를 잡을 때의 상황들 그리고 '아제아제바라아제'란 작품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해주었다.

나는 종교적 견해에서 작품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으나 작품을 구상하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고 한승원 작가의 말씀에 경청했다. 결론은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한다는 이야기였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이 지나치게 생기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소박한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해산토굴에서 내려와 문학산책로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데까지 걸어 내려오는데 바닷바람과 들판의 신선하고 상큼한 내음에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나는 푸근한 느낌이 들어 꼭 정든 고향에 찾아온 것 같이 느껴졌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상상하며 가니 너무너무 좋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기쁜 마음이 들었다.

차량에 탑승하여 잠깐 이동을 하니 방촌유물전시관이란 곳에 도착했다. 방촌유물전시관은 장흥 위씨 집성촌으로 고려 말 고읍지였던 방촌 마을의 유물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어진 곳이다. 전시관에는 조선 실학의 대가 위백규 선생의 유물과 고려 때 농어촌에 사용하던 생활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육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보며 감탄과 감동을 느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년 전에 있었던 물건들을 보관하고 전시 한 것이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였다.

나를 안내해 주는 분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영안으로 보니까 너무 훌륭한 유물이라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러자 안내자분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라고 했다.

우리는 다시 이동하여 천관산을 향하여 걸어 오르며 설명을 들었다. 천관산에는 ‘장천재’ 라는 재각이 있다 하였는데, 그 재각은 옛날에는 서당이라 하였다.

한 시간을 넘게 걸어갔는데 바람도 좋고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 공기도 아주 좋았다. 그래서인지 6학년 7반인 나에게도 피곤함은 없었다. 그저 마냥 즐거웠다. 천관산에서 하산을 하여 차로 이동한 후 장흥 특산물이기도 한 표고버섯으로 만든 표고전골요리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였다.

다시 차량을 이용하여 하룻밤을 묵을 옥섬워터파크로 이동했다. 익산 지회 일행들은 601호로 숙소를 배정 받았고 그 곳에 모인 우리 7명은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다. 밤새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가 뜨자 산책을 가자는 이가 있었지만 우리일행은 개별적인 행동을 삼가고 아침 식사시간에 모여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하루의 일정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잘해야 된다는 화기애애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식사를 하고 난 후에도 자리를 떠날 줄을 몰랐

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이후 일정 때문에 이동을 해야만 했다.

다시 차를 타고 거의 한 시간을 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차를 하여 설명을 들으니 보성군 녹차밭인 봇재다원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녹차나무 사이사이를 걸으며 녹차나무 이파리를 만져보았는데, 손안에 들어오는 촉감이 사철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의 산중턱에 올라갔을 때 6월의 땡볕은 어디로 가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선택했다. 마치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고려 해주는 것처럼.....

녹차도 시음하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마련되어 봇재다원 휴게실로 이동했다. 휴게실에 들어가니 신선한 향기가 더욱 더 진동하였다. 육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우리들의 눈에는 봇재다원의 모든 녹차가 이곳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은은함에 흠뻑 취하여 있던 우리들은 아쉽지만 다음코스를 위하여 이동하였다. 순천시에 입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생각대로 순천시내라 하였다. 일정의 마지막 식사 시간이었고 역시 음식이 맛있고 좋았다. 1박 2일 동안의 프로그램 진행과 지역특산물 위주의 식사 메뉴들은 매우 훌륭하였다.

마지막 코스인 순천만 자연생태학습관을 거쳐 무진교를 통해 한없이 넓은 갯벌과 갈대밭을 마음으로 그려보니 가서 보기도 전에 환상에 도취되고 말았다. 무진교와 순천만과 갈대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다시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명소라고 순천만 해설사는 말하였다. 그래서인지 김승옥이라는 작가는 무진교와 순천만과 갈대밭을 배경으로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을 썼다고 한다.

1박 2일의 여정 동안 마음의 눈으로 보는 나는 가슴이 무척 벅차올랐다. 그러나 그 마음을 힘들게 억제시켰다. 나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앞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시각장애인이 되어 처음으로 떠난 테마독서여행을 통해 또 다시 나를 발견한 것이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월 16일~1월 31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1월 16일(월요일) 2012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예산집행지침회의를 주재했으며, 다음 날인 17일(화요일)에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장애인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후 한시련 정기이사회를 주재했다.

18일(수요일)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 참석했으며, 이날 2년 임기의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날 올해의 장애인상 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다.

20일(금요일)부터 24일(화요일)까지 5일간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라이트하우스, 안마센터, 오사카 맹인협회 등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26일(목요일)에는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퇴임식에 참석했으며, 27일(금요일)에는 관악구사회복지시설연합회 정기총회와 장애인총선연대 회의에 연이어 참석했다.

30일(월요일)에는 한시련 포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장애인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31일(화요일)에는 서울맹학교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1월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49)

<헛갈리는 외래어 표현들(1)>

1) 미용실에서 웨이브 머리를 만들기 위한 시술은 '파마'가 맞을까? '퍼머'가 맞을까?

-답: 파마

-해설: 원어인 perma의 현지 발음을 중시한다면 '퍼머'가 맞겠지만, 머리 모양의 종류를 뜻하는 말로 '파마'가 관용화되었으므로 '파마'를 바른 표기로 삼는다. 다음 예시에서 (가)는 맞는 표기이고 (나)는 외국어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지만 표기상으로는 틀린 말이다.

-예시

(가) 아메리카, 아날로그, 아나운서, 박테리아, 바겐세일, 부메랑, 부탄가스, 카메라, 가톨릭, 사이다, 코카인, 드라마, 에센스, 에메랄드, 쿵후, 마담, 마네킹, 마라톤, 모델, 오페라, 파라다이스, 라디오, 세미나, 스태미나

(나) 어메리커(어메리카), 애널로그, 어나운서, 백티리어, 바긴세일, 부머랑, 뷰테인개스, 캐머러, 캐솔릭(카톨릭), 사이더, 코케인, 드래머(드라마), 에슨스, 에므럴드, 쿵푸, 매덤, 매니킨(마네킨), 매러션(매러산), 모듈(마들), 오퍼러(아피러), 패러다이스, 레이디오, 세미너, 스태미너

-참고: 관용에 따른 표기는 오직 관용이 적용되는 어휘에만 한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paradise'는 관용에 따라 '파라다이스'로 적지만, 물고기 품종이름인 'paradise fish'는 발음에 따라 '패러다이스피시'로 적어야 한다.

2) '스티로폼'과 '스티로폴' 중 맞는 말은?

-답: 스티로폼

-해설: 외래어의 형태(발음)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시의 (가)는 맞는 표기이고 (나)는 틀린 표기이다.

-예시

(가) 앰블런스, 바흐, 바리케이드, 버튼, 베이지, 카바레, 캐러멜, 카디건, 카탈로그, 침팬지, 쿠데타, 큐피드, 앙코르, 앙케트, 팡파르, 필름, 깁스, 고흐, 매머드, 매니큐어, 렌터카, 링거 주사, 스넥, 쇼파, 수프, 스티로폼, 텀블링

(나) 엠브란스, 바하, 바리케이트, 보턴, 베지, 카바레, 카라멜, 가디건, 카달로그, 침팬치, 쿠데타, 큐피트, 앙콜(앵콜), 앙케이트, 팡파레(빵빠레), 필림, 기브스, 고히, 맘모스, 매니큐, 렌트카, 닝겔(링겔, 링게르) 주사, 스넥, 쇼파, 스프, 스티로폴, 텀블링

<참고>'스티로폴'은 독일어 'Styropor'의 표기로서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외래어 표기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스티로포어'가 맞는 표기지만, 제14차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에서는 이 말에 대해 영어 표기인 '스티로폼'을 쓰도록 결정하였다.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2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